

함께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식나눔 vol.02

수업을 말하고
아이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기댈 수 있는
우리가
함께라서 좋습니다

힘들을 나누고
서로 다름에서도 배우며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갑니다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식지 - Vol.02

- 04 배움중심수업 짚어보기
- 10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 김해분성고등학교 / 강동선
- 14 수업을 이야기한다는 것 - 합천중학교 / 오남영
- 18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뭐 별 건가요? - 신어중학교 / 전현주
- 22 전문적학습공동체, 뭉치면 한다! - 양산중앙중학교 / 김민주
- 26 같이 가요, 함께 해요! - 합천고등학교 / 정진숙
- 30 함께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수업변화 - 물금중학교 / 황영미
- 34 "선생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 호암중학교 교감 / 홍정희
- 38 차분히, 그러나 조금은 급하게 - 충무고등학교 교감 / 이근우
- 42 친해야 다가서고 쉬워야 실천한다 - 신월중학교 교장 / 김덕현
- 46 소통과 나눔 그리고 성장 - 대곡중학교 교장 / 황승재
- 50 웹툰 - 함께 자라는 교사들
- 54 중·고등교사 talk & talk -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 64 궁금합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 68 2019.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한 눈에 보기



수업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수업을 나누는 시간이
성장의 시간임을 알게 된 첫 해입니다.
수업을 말하고
학생을 얘기하며
서로를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선생님들 곁에 있어 좋습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내미는 손을 굳게 잡아
함께 일어서게 하는
선생님들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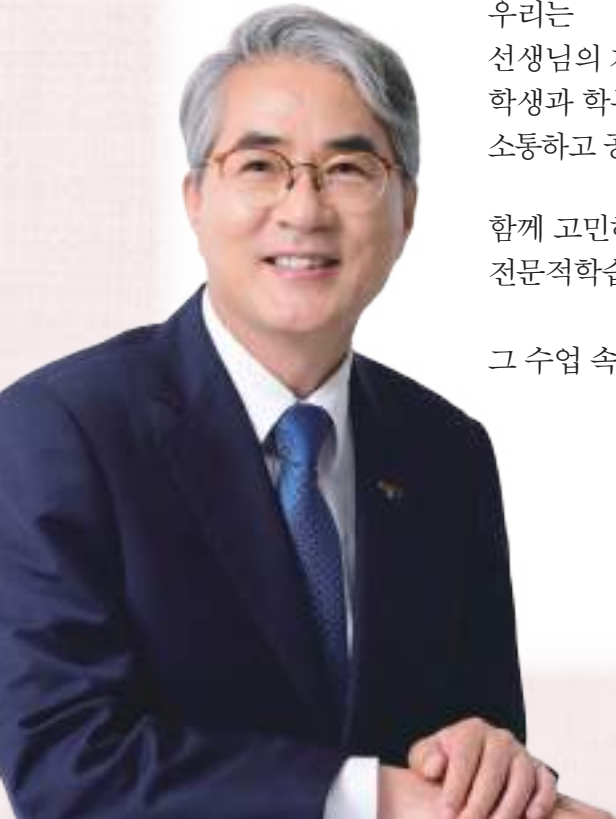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선생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주적 학교문화의 기초를 만들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속에 수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수업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2019. 11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배움중심 수업은?

우리 교육의 지향, 교육내용, 평가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일정한 모델이나 형식적인 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개별화된 배움의 기회가 보장되어 "학습자 스스로 활동하고 협력하여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입니다.

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발적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말하며, 학습자의 자발성을 기초로 교사와 학생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수업"입니다.



배움중심수업은 **관점**입니다.



관점의 변화

- 고정불변의 지식 ➡ 지식은 변화하는 것이며 탐구하는 것. 즉 지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활용. 지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배우는 것
- 수동적인 학생 ➡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 배움과 변화의 주체
- 무엇을 아느냐의 강조 ➡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강조
-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 ➡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사
- 삶과 분리된 교육 ➡ 교육이 삶의 과정 자체



배움중심수업의 준비

- 교사는 교육과정을 읽고, 해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교육과정문해력이 필요합니다.
- 교육내용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수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수업 속에서 교사-학생, 학생-학생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존중의 태도와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 수업을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으로 이해하고, 학생의 성장(중점)발달과 교육과정에 대해 동료와 함께 나누고 성찰합니다



프로젝트학습, 협동학습, 문제해결학습, 하브루타, 협동학습, 거꾸로 학습 등이 많이 활용됩니다.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전체계획을 말하며 보통 교과활동, 생활교육,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교육과정문해력이란?

교육과정을 읽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학생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구안·실천하고, 성취정도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교육과정 상용능력/교육과정재구성-수업디자인-평가활용능력)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주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기획하며, 협력적인 조사탐구활동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며, 삶과 학습이 맞닿은 학습입니다.



활동적이고 협력적인 배움을 위하여 - 모둠활동

수업 중 가르침과 배움은 상호보완적이고 교사, 학생 모두 가르침과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둠활동-전체활동-개인활동의 적절한 배치



모둠활동



전체공유활동



개인활동

- 경청과 배려, 존중의 교실문화가 바탕이 되는, '배우는 관계' 만들기
- 학생이 활동하는 수업은 '깊이 있는 사고활동'을 동반
-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관계' 만들기



힘들지만 이라서 모둠활동을 해요

참여하고 생각하는 수업으로 전환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과제를 친구와 함께 배울 수 있어요.
 함께 배우는 관계를 배울 수 있어요.



어떨 때 더 잘 배울까

- 자신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될 때
- 학교가 학생들이 배우길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곳일 때
- 흥미와 호기심이 있으며 스스로 정말 알아야 한다고 느낄 때
-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때
- 스스로 또래를 가르칠 때
- 도전적인 과제를 만날 때
- 사회적 교류, 협동의 기회를 가질 때
- 체험할 때(Practice by doing)
-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얻을 때
- 배운 것을 스스로 표현할 때
-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관계가 될 때

-존홀트





교육과정 재구성

지역사회의 특성, 학교마다 처한 상황, 학생들의 경험 등이 다르므로 학교수준, 교사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들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단계를 넘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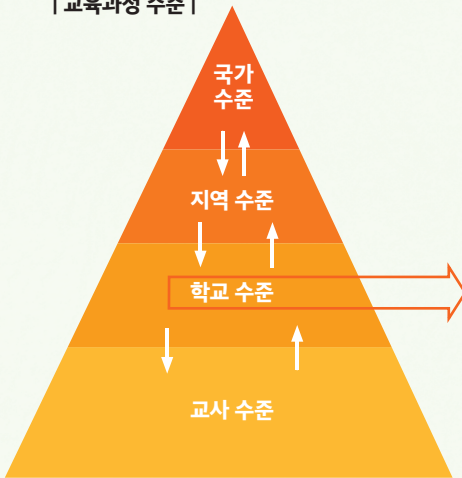
개념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성찰하여 필요한 교육과정(학교-학년-교실, 지역상황)을 반영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
성취기준 재구성에서부터 수업계획, 평가계획까지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학습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을 구조화하는 것



좋은학교는? 좋은교육과정을 가진 학교

| 교육과정 수준 |



| 학교(학년)수준의 교육과정재구성 예시 |

학년	학년비전	프로젝트 내용
1학년	나 바로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맺기, 공동체 문화 만들기 • 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가 있는 지역여행 프로젝트 • 학생자치선거 프로젝트
2학년	세상과 만나는 행복한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한 수학여행 프로젝트 • 감사 프로젝트 • 생활규정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알기 프로젝트 • 학생자치선거 프로젝트
3학년	꿈 너머 꿈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캠프 프로젝트 • 감사 프로젝트 • 생활규정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선거 프로젝트 • 졸업 프로젝트

Q. 교육과정 재구성!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A. ‘교육과정 문서’는 법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재구성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 자료’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정·보완 등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문서 : 2015 교육과정 총론, 교과각론,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교육과정자료: 교육과정해설서,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등

교육과정재구성을 잘 하려면

우리학교 아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학년 아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나누고, 교과교육과정을 연결하고, 덜어내야 할 것과 더해야 할 것을 논의하는 등 교사들의 소통·협업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준비

- 2월 워크샵의 내실화
- 학습공동체로서의 학교문화조성
- 교사들 간의 소통과 협력
- 학부모 및 학생과의 소통 및 참여

교육과정 재구성

- 학교수준교육과정 재구성 (비전공유, 학교상황)
- 교사수준교육과정 재구성 (교과내, 교과간, 주제중심 등)
- 양을 줄이고, 수준은 높이기

배움중심 수업

- 삶과 맞닿은 학습자료
- 역량을 기르는 수업
- 활동-협동-표현
- 주제-탐구-표현
- 프로젝트, 학생활동, 토의토론, 협동학습 등의 적절한 배치

성장 및 학습을 위한 평가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 학생의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평가
- 결과중심 아닌 과정중심
- 백워드수업설계
- 다양한 평가방법
- 역량 및 정의적 특성 평가 시도

이 일련의 과정은
이제 교사 개인의 과제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김해분성고등학교 교사 강동선



학교형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사례

어려운 점은 함께 극복하기

고등학교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일상적이며 다양한 비교과활동도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우리학교는 과학중점학교라 타 학교에 비해 수업시수가 더 많습니다. 항상 일에 쫓기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학교,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고 다함께 모이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힘들었던 우리학교의 문제, 그것은 '선생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직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시간 확보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운영되었던 범교과 교육을 교과시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 전체 교사에게 수업과 협의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공개하는 학급만 남기는 것도 같이 정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단 몇 시간이라도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김해분성고등학교 교사들은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시간을 확보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것

시스템이 만들어지자 곧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누가 수업을 공개할 것인가?’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교과별, 학년별로 한 명씩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절박감까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바탕은 자발성과 동료성이고 그렇다면 시작부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것인가..... 내가 먼저 수업을 공개해서 ‘수업나눔을 하면 참 좋고 많이 배운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한다면 뜻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첫 수업나눔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순서에 맞게 수업설계를 위한 사전협의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수업을 이끌고 갈 것인가?’를 조언해준 물리선생님, ‘필요없는 자료는 없애라’는 역사선생님, ‘질문은 명료하게!’라며 과제를 깔끔하게 다듬어 준 국어선생님..... 수업 준비를 함께 하며 공개수업이라는 짐이 가벼워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업공개 시간은 또다른 감동으로 참관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말쑥꾸러기였던 학생이 수업을 주도하고, 과묵했던 학생이 모둠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또 전체 공유 시간에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와는 다른 교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학생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수업시간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협의회 시간, 한 선배 선생님의,

‘배움중심 수업은 지식을 스스로 구조화시키는 경험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수업을 보아야 하는지, 배움중심수업을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주었습니다.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수업을 보는 안목을 배우고, 배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업협의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업을 공개한 반의 담임선생님이,

“다른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 좋았고, 학생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학급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는 말씀에 덧붙인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소감은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해주었습니다.

수업나눔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둠활동을 통한 협동적 배움의 경험은 학생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신뢰를 쌓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나눔 이후 수업을 공개하겠다고 신청하신 선생님은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함께 수업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를 바꾸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아무리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다른 교사들과 협력하여 학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 학사업무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님들의 도움, 수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든 선생님의 노력이 잘 어우러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힘든 점도 많습니다. 사전협의회의 날,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선생님들이 한 분도 오시지 않는다거나 수업나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퇴근시간이 임박했는데 수업협의회가 미처 끝나지 않았을 때.....그럴 때마다 마음 한 켠에 '힘들다'라는 말이 벽돌처럼 켜켜이 쌓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선생님들이,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볼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

“수업 듣고 협의회 하니까 수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 좋았다.”

“내가 교사로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할지 이제 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얼굴 어디에선가 숨어있던 웃음이 나오면서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의라차!'하고 힘이 납니다. 또, 수업협의회를 할 때 자신의 수업에서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서 성찰하는 모습, 모둠 수업이 왜 안되는지를 알았다며 자신의 수업을 바로 바꾸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뭐래?”

“수업으로 수업을 배우는 거래.....”

“공개수업? 입시가 중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개수업을 하라는 게 가능해? 그것도 전체교사 앞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교육청에서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야?”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했던 말씀들입니다. 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던 의문, '정말 고등학교에서 동료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고민하고 배우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우리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작은 발걸음을 땀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인다면, 고등학교에서도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일상화되고 '우리 모두 수업으로 행복한 교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수업을 이야기한다는 것

합천중학교 교사 오남영

학교형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사례

신의 한 수

‘수업의 전문성은 무엇일까? 온라인 강의나 학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배움 중심 수업’,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용어들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부터 교과군별로 수업 공개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전체교사가 모여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 수업이 있는 선생님들은 수업 참관이 쉽지 않았고, 바쁜 업무로 수업의 일부를 잠깐 보거나 참관한 수업이 다 다르다 보니 협의회는 주로 수업자의 자기반성이나 수업 지도안을 보고 두리뭉실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협의회를 하고 나오면 ‘이게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남곤 했지만 함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일과 중에 반드시 운영하라는 방침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수업 참관을 하고 같은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의 영역이라 서로 간섭하지 않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직경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남모르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동료와 함께 툭 터놓고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싶었나 봅니다.

시작이 반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처음에는 월 2회 운영으로 연수와 수업 나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멋진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맡는 일이라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도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만 하고 그만할 게 아니니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차근차근 해보자고 생각하고 운영내용을 고민했습니다.

‘학교는 교사 연수의 최적화된 현장이며, 가장 좋은 연수 내용은 수업’이라는 말이 해답이 되었고 우리 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전 교사가 함께 하는 수업 공개가 주 내용이 되었습니다. 학교 학사 일정을 참고하여 날짜를 정하고 교무실 칠판에 종이를 붙여 수업 공개를 해주실 선생님들께 희망 일자와 학반을 적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께서 먼저 수업 공개를 해 주시고 신규 교사와 새로 전입해 오신 선생님들은 되도록 2학기에 하실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업이 공개되는 과목과 학반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고 사전협의회 일자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사전협의회를 꼭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에 잡혀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학공 첫 시간에는 전학공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방향에 대한 연수를 가졌고, 이후 4월부터 사전협의회-수업 공개-사후 협의회를 세트로 묶어 운영하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들의 수업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은 일

저는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가장 먼저 수업 공개를 하였는데 갈등 해결이 수업 주제인 도덕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사전협의회 시간.

명화카드 속 갈등을 찾고, 그 갈등과 해결과정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수업디자인에 대한 짧은 설명이 끝나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사전협의회를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연극을 통해 성취기준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다. 진짜 하고 싶은 수업은

갈등이 들어 있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적당한 작품을 찾지 못했다' 등 푸념섞인 걱정거리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선생님들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명화 카드가 너무 어렵다. 수업 시간이 부족 할 것 같다.'라는 격려와 걱정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응원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게 사전협의회의인가?' 라고 느끼고 있을 때쯤 5월 음악과 사전 협의회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붐웨커라는 악기를 조별로 연주하여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고자 하였는데, 음악실이 좁아 모듬끼리의 연주가 다른 모듬에 방해가 되어 협력은커녕 서로 탓하기 바쁘다고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전 협의회에 참석한 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고민하셨지만, 악기의 특성상 소리가 나니 학생들에게 서로 이해하라고 말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때쯤 한 선생님께서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장으로 나가세요. 아니면 체육관으로 가시던가. 음악 수업을 꼭 음악실에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장소가 좁으면 더 넓은 곳으로 가야죠.' 모두 음악실이라는 공간은 그대로 두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 때, 발상의 전환을 한 선생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아~이래서 사전 협의회가 필요하군요.' 수업을 공개하는 음악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전협의회를 통해서 국어 선생님께서 자신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지식적인 부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며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이 날 만한 수업,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선생님께서는 수업 전 미리 도움반 학생들을 위해 도움반 선생님께 수업 자료를 주어 개별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는 듣기 힘든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응원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사전협의 의회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전문가 어렵지 않아요!

수업 공개를 전 교사가 하기 위해서는 월 1회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2팀 또는 3팀으로 나누어 수업을 참관하고 팀별로 협의회를 가진 후 전체 공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 공개는 매월 넷째 수요일 6교시에 해당 반만 남기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귀가시킨 후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서 수업 공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수업 연구 활동을 돕는 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줬고, 봉사활동 1시간과 약간의 간식도 제공하여 일찍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수업공개 어떻게 준비하지?'는 모두의 고민이었습니다. 수업을 공개하는 선생님이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모듬에서 학생들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경험이 쌓였습니다.

'수업에서 무엇을 봐야하지?' 이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전학공 첫 시간에 연수했지만 수업을 제대로 보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변화는 있었습니다. 수업 공개 일이 다가오면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구식이라 볼 게 없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노련함을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학생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보는 거 아시면서~'라고 웃으며 말씀드리면 또 씩 웃으시며 수업협의회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도 1시간 내내 수업을 참관하시고 협의회까지 참석하시어 따뜻한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 격려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11월 수업 나눔을 앞둔 지금 수업 후 협의회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수업을 공개한 교사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학생들의 활동, 학생들의 관계, 교사의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모둠의 ○○이가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모둠으로 가서~.’ 그리고 자신의 수업 시간을 생각하며 학생들의 다른 모습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 수업 때는 엎드려 있던 ○○이가~깜짝 놀랐습니다.’ 협의회 내용을 잘 메모했다가 학생들에게 피드백해주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번 협의회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라는 말이 ‘선생님, 우리 잘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더 힘내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학교라는 공동체는 특히 관계가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며 학생과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업을 교사 개인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교사가 함께 수업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료 교사의 수업을 보면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수업이 만족스럽게 잘 된 날 슬쩍 자랑도 하고, 수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털어 놓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토닥이고 위로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공동체가 바로 전학공입니다. 얼마 전 ‘전학공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 진짜 전학공은 필요하다.’라고 교직 경력 30년이 넘은 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동료와 함께 손잡고 ‘학생들이 행복한 수업, 교사가 행복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학교에서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뭐 별 건가요?

신어중학교 교사 전현주

학교형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사례

어려움을 알아주는 것에서 출발하기

학교를 옮기는 일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에 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지역을 옮겨 이동할 때는 내가 예상하고 지원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우리 학교의 경우 관내 지원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학교입니다. 저 역시 작년에 발령을 받고 몹시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생활 여건이 불안정하다 보니 학습에 대한 의욕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교사나 급우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서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 모두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 지도에 힘과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 같이 앉아서 잠깐 얼굴 볼 시간도 여력도 없이 각자의 섬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무겁게 헤쳐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누구랄 것 없이 도저히 이대로는 학교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겠다는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위기 의식이 선생님들을 한두 명씩 모이게 했고요. 그렇게 모여 보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슬로건은 빼고 이런 어려움을 서로 알아주는 일, 또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일을 목표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열게 되었습니다.

2월에 담당자 연수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이 모임을 억지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일들을 서로 기댈 수 있는 자리로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성이 보장되지 않는 모임은 시작도, 지속도 어렵다는 것을 교직생활 내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

2월 말 업무 분장이 끝나고 교육과정 워크숍 때 선생님들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정례화를 논의하면서 가장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겪은 학교 생활의 어려움과 실패담들을 토로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들 이 모임의 필요를 공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한 해 동안 같이 해 볼 일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원칙은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와 '수업나눔을 중심에 놓기'였습니다.

이때 '수업나눔'이 기존의 '공개수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공유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공개수업이 해당 수업에 대한 평가라면, 수업나눔은 그 수업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자들의 '간증'을 통해 알리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수업나눔'을 한번 해 보겠다는 6명의 지원자가 꾸려졌습니다. 24명 중에 6명이니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했고, 저경력교사들이 아니라 30대 2명, 40대 2명, 50대 2명으로 고르게 지원자가 나온 것에 다들 감동했습니다. 특히 50대 선배교사들의 경우 지원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체 선생님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컸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기본적인 믿음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수업 나눔,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기

교실을 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열릴 때 수업자도 참관자도 제대로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나눔은 수업을 공개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협의회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협의회의 내용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업자는 자기 수업에서 의미를 발견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성찰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참관자 역시 수업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면서 수업 보는 눈을 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사전협의회를 하면서 놀란 것은 정말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업 활동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쌓은 전문성이 여기저기서 발휘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활동지에 조언하지 않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고 그냥 다 좋다고 넘겨오곤 했는데 그럴 경우 수업공개는 여전히 수업자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사전협의회에서 수업자의 활동지를 초안으로 생각하고 함께 활동을 구체화하여 정리하고 나면 더이상 그 수업은 남의 수업이 아니라 내 수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수업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수업 나눔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공동의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인원이 적어서 학년 구분 없이 전체교사가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관찰모듬을 나누어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수업나눔이 몇 번 진행되면서 참관교사들이 자신이 맡은 모듬 학생들을 잘 관찰해서 협의회 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역할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수업자 선생님이 참관 선생님들께 특정 학생의 배움 관찰을 부탁하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묻고 답하기도 합니다.

사후협의회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열고 '사실-분석-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수업한 선생님들은 이 때 힘을 많이 얻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협의회를 통해 한 시간의 수업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이토록 많았나 놀랐고 수업을 열어준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자의 경우 협의회 말미에 '수업자 성찰' 과정을 통해 처음 의도와 달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부족함을 스스로에게 피드백하면서 수업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고요.

수업나눔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미 있는 과제가 제시되고 적절한 도움이 주어질 때 아이들이 얼마나 배움에 대한 욕구로 충만해지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언제든 무슨 일에도 기대할 곳이 있다는 것

수업 외에도 학교에서 해야 할 업무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맡은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고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관례라 보니, 시범학교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은 담당자는 혼자서 일 년 내내 끙끙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이 물론 수업나눔에 무게를 두기는 했지만 업무 면에서도 서로 기대할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맡은 STEAM 선도학교 역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꾸려진 교과모임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만들어 내는 형식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선도학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수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프로젝트 역시 한 사람의 업무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 행사를 통해 배웠으면 하는 점들을 공유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교육적인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일상적인 생활지도에서 서로 더 쉽게 소통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공동의 일로 인식하고 해결하려 하게 된 점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성과입니다. 수업을 나누는 것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학교 동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디자인』(사토마나부, 에듀니티)에 “교사 한 명 한 명의 실천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천’이며, 교사라는 직업은 누가 하더라도 완전한 성공을 달성할 수 없는 이른바 ‘전문직이 될 수 없는 전문직’이다. 교내 연수로 형성되는 전문가 실천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실천’을 ‘보이는 실천’으로 전환하고, ‘전문직이 될 수 없는 전문직’을 ‘실현가능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학교 선생님들과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하며 온몸으로 실감한 내용입니다.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

아이들을 돌보고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밀린 업무 처리와 학생 상담으로 모임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규 일과 내에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이 꼭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뭉치면 한다!

양산중앙중학교 교사 김민주

학년형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사례



교사,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만나다

어떻게 하면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만나게 할 것인가.....

올해 저에게 가장 큰 과제는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우리 선생님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사들에게 수업은 온전히 개인의 것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내 수업'과 '내 학급'을 뛰어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제안하고 운영해야 하는 담당자로서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함께하는 수업연구는 필요하지만.....수업공개는 가능한한 피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취지를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모임 형식의 연구회를 접해보신 선생님들 중심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핵심, 수업나눔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업공개와 협의회는 일과 시간 중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전교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학교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학년별 사전협의회



공개수업 협의회

함께 수업을 나누다

64명의 교사의 수업나눔을 계획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교과와 연계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일부터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수업공개 방식도 정했습니다.

'학년별 수업나눔의 날'은 연 4회

'교과별 수업나눔의 날' 연 1회

'학년별 수업공개'는 1, 2명이 동시에, 세 개 학년이 최대 6명까지



혼자가 아닌,
함께 수업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
해나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료도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교육주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히든카드, 학생

수업공개가 있는 날은 해당 학반 학생들만 남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귀가합니다.

‘선생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혹여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했던 우려는 학생들의 대답에 깨끗이 날아갔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힘이 부쩍부쩍 솟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 내내 바로 옆에서 자신을 관찰한다는 사실에 긴장하기도 하고,
관찰하던 선생님에게 답을 물어보거나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목받는다는 것은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의욕적으로도 만드나 봅니다. 평소에 잠을 자던 학
생들조차 질문을 하고, 또 모둠활동 속에서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수업은 ‘함께 배우는 것’

수업공개 전 학년연구회가 있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는 전교사가 학년별로 모여 활동지를
검토합니다. 몇 차례에 걸친 사전연구회를 통해 서로의 짐을 나누는 시간은 교사들은 같은 고

민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며 '잘되면 좋겠다'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교사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 줍니다.

공개수업 후 협의회에서는 수업에서 관찰한 학생들의 모습, 수업설계, 교사의 태도 등을 통해 자신이 배운점을 나누고, '지식 전달에 머물렀던 수업을 어떻게 역량을 키우는 수업으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수업전문성, 집단지성을 통한 질적 성장이라는 구체적 경험을 맛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협의회 시간에는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 나눈다'는 원칙을 세우고, 솔직하다는 이유로 지적이나 충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잠자고 떠들던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수업공개에서 발견하는 것은 협의회 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나의 수업시간과 비교해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업마다 적어도 한 가지씩은 찾을 수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수업에는 배울 것이 있다는 선배교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수업공개를 하셨던 많은 선생님들은 '협의회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 특히 컨설팅에서 배움이 컸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모든 공개 수업교사가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씀을 덧붙입니다.

함께여서 부담스럽지만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시작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해서 함께 운영한지 1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라는 말은 아직 부담스럽고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장기 기증'에 비유되는 수업공개를 용기내어 결심해주고 바쁜 일과 중에도 사전 수업연구회와 사후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이 나의 동료라는 것이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수업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중앙중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동료들과 함께라면 그 길 또한 즐거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같이 가요, 함께 해요!

합천고등학교 수석교사 정진숙

교과형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사례



뿌듯뿌듯 보람보람

두꺼운 책자... 교장, 교감의 참관...
혼자하는 수업고민.....

기존 공개수업은 정말이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교육적 패러다임은 변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는’,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는’수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수업 전 만들어진 수업설계안과 활동지를 보여주자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교사들이 수업공개에 몰려들었다.

우리학교의 통합수업은 수업 전 준비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수업공개 후 협의회 시간이 되면,

뿌듯하다
보람있다

는 소감이 많이 들린다.

통합교과 수업공개, 이렇게!

수업에 대한 우리학교 선생님들의 고민은 다양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만큼의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배움중심수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또 프로젝트 학습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주제는 어떻게 정하며 질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기 위한 30시간의 특수분야 직무연수 이수. 통합교과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업연구회 및 교사동아리 모임참여, 그리고 함께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신청하고 목적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만의 수업을 시작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시작!

우리학교는 수업 전 협의회를 위한 정해진 시간이 없다. 어떻게 사전협의회를 하라는 강요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수업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만났다. 학교 안 교무실과 휴게실, 학교 밖 '오세요'카페, 단골식당 등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어디든 같이 모여서 수업고민을 나누는 협의회에는 수업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동교과 교사들도 함께 했다.

보통 사전협의회를 통해 2~3명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주제를 정한 후 수업 안을 만들고, 학생활동지도 작성했다. 그리고 수업 공개 전에 완성한 수업자료는 우리학교 모든 교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7교시 자율활동시간은 수업 공개 시간으로 정례화되어 있다. 2월 새학년맞이 워크숍 시간에 세운 통합교과 수업공개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는 것이다.

본교 교사들은 수업안과 활동지를 보고나서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 공개 장소에 모였다. 또, 경상남도교육청 수업나눔 교사제에 참여하고 있어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수업을 참관하고 싶은 외부 교원들도 찾아왔다.

수업 공개에 이어서 8교시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수업을 참관한 교원들이 함께 협의회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한 교사들은 모두 등글게 앉아서 수업자 교사들의 수업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이후 써클활동 형식으로 본인의 소개와 함께 수업 소감들을 나누었다. 우리학교 연구부 소속 교사들이 간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일품'이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매월 우리학교의 수업연구 소식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의 주민분들에게도 전했다. 그리고 우리학교 홈페이지 '배움중심수업' 코너에 수업 관련 자료를 올려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도 수업을 나누는 일을 계속 해왔다. 따로 통합교과 수업이 궁금하여 자료를 의뢰하는 교원들도 있어서 수업안과 활동지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질 높은 수업 설계, 집단지성의 힘 발휘, 부담스럽지 않은 공개 수업, 교사 수업전문성의 향상 등은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협력적 활동이 있었으므로 가능하였다."



물질의 결합-다양한 물질-드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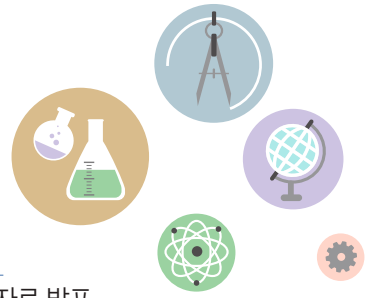
화학, 물리, 생명과학.

서로 다른 성격의 학문으로 보일 수 있는 과학교과의 과목을 담당 교사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통합수업. 시작은 통합과 학과 과학탐구실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이었다. 학기당 6개의 주제를 정하고 각 반마다 3시간의 블록수업으로 계획하여 2주간 6차시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했던 것도 진행방식에 대한 함께 하는 고민 속에서 결정했다. 3명의 교사가 각자의 과목을 주제별로 연계하여 내용을 안내하고, 지필고사 문제도 함께 출제하는 통합교과 수업이었다.

학생들은 주제에 따라 소모둠에서 대모둠으로 옮겨가며 활동하고 산출물을 만들고 학습내용을 익히는 과정에 따라 스스로의 배움에 몰두했다.

"물질의 결합-다양한 물질-드디어"를 주제로 1~2차시는 주기율표와 화학결합, 생명과 관련된 화학결합 물질을 소모둠으로 학습하고, 3차시에는 국어 교과시간을 빌어 작성법을 배운 후 시나리오를 쓰도록 했다. 그리고 4차시에는 시나리오에 따른 연극 연습을, 5차시에는 연극활동, 6차시에는 동료평가와 함께 소감나누기를 진행했다.

결합으로 시작되는 유전정보의 흐름-과학기사평가
 지구 내부의 힘-생물 대멸종-여행브로슈어 만들기
 세포시스템 이야기-이야기 만들기
 산화-환원반응-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꾸다-UCC 평가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분석-실생활 예시자료 발표



위에 열거한 어마어마한 제목들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과학과 통합교과 수업시간 실제 공부했던 1학기 수업주제들!

통합수업, 그 후

“교과통합수업이 학생에게는 질 높은 교과 체험으로 행복한 배움에 이르게 하고, 교사에게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평상시에 작동하고 있어 언제나 원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주고받는 동료 장학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역량이 향상되고 있다.”

(2019.04. 김○○ 교장)

“교과통합 수업을 하고부터 교실 안팎에 수업의 결과물이 붙어 있었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것으로 대화를 나누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2019.08. 한○○ 국어교사)

“선생님들이 교실주의에서 벗어나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되면서 학교자율장학 역량이 집결되었다.”

(2019.08. 임○○ 교감)

“혼자서는 막막한 교과내용을 주제 중심의 배움 중심수업으로 다른 교과 선생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깊이가 다르게 수업 설계가 가능하고, 공개 수업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2019.09. 오○○ 수학교사)

질 높은 수업 설계, 집단지성의 힘 발휘, 부담스럽지 않은 공개수업, 교사 수업전문성의 향상 등은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협력적 활동이 있었으므로 가능하였다. 이후에 들려오는 그에 걸 맞는 평가는 다른 수업을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자양분이 되고 있다.

함께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수업변화

물금중학교 수석교사 황영미





함께하는 학교문화, 수업 변화의 씨앗

배움의 본질이 있는 진정한 교실수업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나의 답은 ‘학교문화’였다.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 수업에 대한 개인의 철학, 삶 등을 공유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교사문화, 교실문화, 학교문화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라 자발성 없이 억지나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수업혁신은 학교문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수업 변화의 싹을 틔우다.

2018년, 새로운 학교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꿈꾸며 개교하는 물금중학교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개교업무로 인해 수업에 대한 고민은 커녕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고 학교의 기초를 잡는데 전 교사들이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수업 그리고 학교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나의 생각을 몇몇 선생님들께 전했다. 이 때 참으로 놀랐던 것은 그 선생님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처럼 생각을 같이하는 교사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에 용기를 얻어 2018년 2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던 때 3일간의 새학교·새학년맞이 워크숍을 하였고 먼지가 풀풀 날리던 학교에 전교사가 모여 학교비전, 교육목표, 핵심역량 등 물금 공동체의 정신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과정을 만들었다. 교장·교감 선생님께서는 수석교사를 신뢰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셨고, 함께 고민하고 합의한 결과를 ‘어쩌면 당연히’ 그대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1학기에는 개교 준비로 힘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체 선생님을 대상으로 수업과 관련된 연수보다는 문화체험활동, 독서토론,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학교를 벗어난 다모임 활동 등에 시간과 마음을 쏟았다. 그리고 수업 변화의 열망이 큰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탐구 동아리인 ‘교실



공동수업디자인을 통해 교사와 교사를 연결하고,
과목과 과목을 연결하여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넘어 마을'을 만들었다. PBL을 연구한다는 명패는 달았지만 일단 우리끼리 재미지는 일들을 기획했다. 차도 마시고 함께 책도 읽고 일상의 고민도 나누면서 서서히 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갔다.

2학기에 들어서는 '교실 넘어 마을' 선생님들과 한 달에 두 번씩 소소한 수업나눔을 시작했는데, 퇴근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수업협의회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를 지켜보던 선생님들이 한명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나눔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경남수업나눔 축제와 양산수업나눔축제에 참여하면서,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과목을 넘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등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거침없이 발휘되어, 기대와 함께 2019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빛어내어야할지 고민되었다.



따뜻함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2019년에는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과 함께 3일 동안 새학년맛이 워크숍을 하였다. 월드카페토론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생활지도, 교과교실제 등 학교의 현안을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로 학교와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작년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워크숍의 열기가 뜨거웠고, 매 시간 깊이 있고 알찬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과에 따라서는 일 년의 활동지를 만들어 워크북을 제작하고, 다른 교과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수업 아이디어를 얻고 수업 디자인을 하는 등 이상적인 전문적 학습공

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새로 부임한 교사들은 이 생소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수업 나눔에 맞닥뜨린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막막함, 긴장감은 공명하듯 나에게 전달되었다. 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조언과 참신한 수업방법 제안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고민을 들어주며 선생님들의 장점을 찾아내어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동수업디자인을 통해 교사와 교사를 연결하고, 과목과 과목을 연결하여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우리학교는 학년별로 두 개씩 네 팀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였다. ‘프리즘, 수(授)-UP, C-익(益), 들어조’ 이렇게 이름도 제각각이다. 대단한 성과나 성장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보듬는 따뜻함 속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선생님들의 온도가 높고 초반의 염려와 달리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하는 학교 문화와 작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팀장으로 들어가 각 팀을 이끌었기 때문이고, 나는 4개의 팀을 순회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작년부터 운영되었던 ‘교실 넘어 마을’은 조금 더 전문적인 수업 연구를 진행하였다. 투 트랙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 셈인데, ‘교실 넘어 마을’은 정말 창의적이고 과목의 넘나들이 아주 자유로웠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도덕,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정보, 국어 과목이 각 성취기준에 맞는 수업을 디자인하고 약 2~3주 동안 주제통합 PBL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실은 다 달랐지만 교실 안에는 다양한 시각에서 책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한 ‘학교를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고민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서서히 학교문화가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포함해서 수석교사인 나에게 전해졌던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점차 긍정의 피드백으로 바뀌고 있음을 감지했을 땐 정말 짜릿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 줄기의 희망을 보게 된다

“선생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호암중학교 교감 홍정희

“내가 왜 남의 수업을 봐야 하는데!”

이 한마디는 초임 교감이었던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는.



학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감 3년 차인 올해 학교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잠을 자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잠자는 아이들의 잠을 깨운 것 같습니다. 둘째, 학교의 복도 공간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수업 시간 만들어진 학생들의 산출물이 전 복도의 벽면에 자유롭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시간에 태어난 독립운동가 40인의 이야기,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비경쟁 독서토론회 때 모여진 아이들의 생각, 사회 시간에 토의한 인간에 대한 철학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포스터가 저마다 뽐내고 있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의 만남의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정례화된 전학공 시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사동아리가 생겼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적인 모임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인화력이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넷째, 선생님들의 소소한 대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연수를 함께 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굳이 컨설팅이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수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어과 선생님이 역사과, 과학과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학공은 사람과 생각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전학공)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는 화요일 6, 7교시가 전학공 시간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 초빙으로 운영함으로써 정기적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을 학년별과 교과별로 이원화하여 교과 간 연계와 융합이 될 수 있는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간의 위계나 연계성을 살린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내용은 외부 전문강사 초빙 연수, 전 교사 수업 나눔 및 사전·사후 협의 회입니다. 전학공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특수분야직무연수 30시간으로 인정받게 하였으며, 도교육청 필수 정책 사업 외 학교 자율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 강사 특강, 도서 구입, 협의회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학공 영어 수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마침 수업자 선생님이 방과후학교 담당이었는데 수업 나눔 관계로 교장선생님께서 방과후학교 관리를 대신해 주셔서 모든 선생님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나눔 사후협의회를 하면서 수업자 선생님은 수업 나눔을 위해 같은 교과 선생님과 수업 디자인을 협의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 제공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전날 1시간 밖에 못 잤지만 준비 과정에서 큰 배움이 있었다 하였고, 참관한 체육 선생님은 체육 시간과는 다른 모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새롭다고 하였습니다. 과학 선생님은 과학 수업 때와는 다른 모둠원의 개별 역할에 대해 배웠다 하였고, 학생의 입장에서 느낀 불편함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름'과 '배움'에 대한 이야기로 사후협의회가 채워졌고, 이제는 이런 협의회가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된 것 입니다.



수업을 통해 공적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저의 숙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저의 답은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었습니다.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거창한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를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세상의 변화를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고민하고 저마다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학공을 계기로 만남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면서 행복한 감성적 체험도 하였습니다. 수업은 불가침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아이들과 동료와 함께 하는 공적인 영역이며,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선생님이 다같이 행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올해 신규인 우리 학교의 막내 선생님의 말을 빌려 잇고 있었던 초심을 돌이켜 봅니다.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차분히, 그러나 조금은 급하게

충무고등학교 교감 이근우

배움의 충전!

우리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어렵고 힘든 학교생활 속에서도 수업혁신의 비전을 담아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수업연구회, '배움의 충무고등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사를 행복하게도 또 그렇지 않게도 합니다. 행복한 수업은 당연히 학생의 배움을 기반으로 하며, 수업에 몰입하여 자신의 배움에 기쁨을 느끼는 학생과 함께 하는 교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해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선택한 길, 바로 함께 하는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배움의 충전'입니다.


우리학교 수업나눔은 수석교사의 수업공개에서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처음 시도한 수업나눔은 동료 교사들이 함께 수업연구의 문을 연 계기였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의 적극적 지지와 도움은 전교사의 참여를 이끈 동력이 되었습니다.

“할 땐 화끈하게!”

라는 말씀에, '수업연구를 통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당위성이 더해져서 학교 안 수업연구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일을 활용한 '배움의 충전' 연구회원의 수업나눔은 우리학교 선생님들의 본격적 수업연구 참여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신의 교과 수업 활동지를 미리 만들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며 수업설계를 하는 사전 협의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A man with short black hair and glasses, wearing a dark blue suit, a light blue shirt, and a red and white patterned tie, stands outdoors. He is looking slightly to his right with a thoughtful expression. The background consists of large trees with green and brown leaves, suggesting an autumn setting. The lighting is soft and natural.

"행복한 수업은 당연히 학생의 배움을 기반으로 하며,
수업에 몰입하여 자신의 배움에
기쁨을 느끼는 학생과 함께 하는 교사는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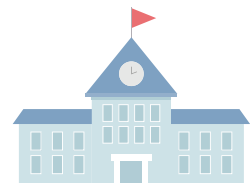


수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상의하고 몇 번의 활동지를 수정하는 과정은 수업자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의 입장이 되어 활동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도움말을 나누는 시간은 수업자가 실제 수업을 준비하는 데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은 일과 중에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배움의 충전 회원들은 규칙을 정해 수업을 참관하고 따로 마련한 협의회 시간에 관찰내용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조건 한 시간 이상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볼 것, 그리고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시간에 다같이 모여 참관내용을 나눌 것. 이것이 회원들끼리 정한 규칙의 내용입니다.

수업 공개 당일,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참관하는 교내 선생님이 더 많은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도 수업 연구를 위해 선생님들이 교실로 찾아오자 전에 없던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교가 차분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하게 된 것입니다. 배움으로부터 도주했던 많은 아이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짝에게 묻고, 모르는 것은 친구의 답을 옮겨 적어서라도 해결하려는 모습. 공개수업시간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이 되면 학생들은 6교시를 마치고 하교합니다. 그리고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혁신을 위한 연구의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관련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배움중심수업에 관한 철학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업연구와 관련한 활동을 탄탄히 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수업나눔을 계획한 달에는 ‘사전 수업설계 협의회 - 수업공개/참관 - 수업 협의회’까지,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형식을 빌어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이, 집단지성의 발휘가 아름답게 구현됩니다.

우리학교는 저경력 교사가 많습니다. 연령대의 간극이 큰 것이죠. 하지만 학교 구성원 모두와 수업연구를 함께 하려는 배움의 총전 선생님들의 열정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동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료성의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우리학교 선생님들의 수업나눔은 ‘배움의 총전’ 선생님들이 항상 함께 하고, 수석교사의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힘든 학교일수록 수업을 열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20여분의 선생님이 ‘배움의 총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참가하여 수업을 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차분히, 그러나 조금은 급하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친해야 다가고 쉬워야 실천한다

신월식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기

신월중학교 교장 김덕현



결을 존중하는 행복공감 교육 을 위하여

“꿈따라 결대로 한결같이 지원하는 신월 행복공감 교육!”

중앙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글은 우리학교의 교육 방향이자 지향점이다. 이는 학생에 대한 인재시교(因材施教)의 교육철학이면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소규모 학교이지만 수학·과학 영재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 특수학급, 야구부, 복싱부와 같이 꿈과 결이 다양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분명한 교육철학이 있어야 ‘신월 행복공감 교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위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시키는 중심에 수업이 있다.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수업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을 해 왔고,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 운영도 그 속에 묵은 숙제처럼 버티고 있었다.

친밀감과 협업력을 높여가는 ‘행복공감 소통의 날’

지난 해 3월부터 시작한 교직원 ‘행복공감 소통의 날’은 우리학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년째 운영되는 이 모임은 기존의 전체 직원회의를 없애고, 매달 첫주 수요일 오후에 전 직원이 원형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앉아 수평적 입장에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모임은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정○○ 부장의 기타반주에 맞춰 세대공감 가요합창으로 시작한다. 서너 곡의 노랫소리가 창문을 넘는 동안 한 달간의 무거웠던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이 달의 생일축하 노래에 뜨거운 박수까지 나누고 나면 따뜻한 행복공감의 장이 펼쳐진다.

회의도 일방적 행정업무전달이 아니라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성원의 공감도나 친밀도가 어느 학교보다 높고 학교 비전과 교육 방향의 공유가 원활한 것은 소규모 학교의 특징을 잘 살린 이 모임 덕분이다.

자발적 에너지로 함께 내디딘 전학공 사업

현재 모든 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업은 무엇일까?

학교의 존재 의미가 ‘학생의 성장 지원’이라고 할 때 학생의 성장은 교사의 ‘수업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변 학교들에는 수업혁신 전학공 바람이 일기 시작했으나, 우리는 2018학년도 한 학기가 지나도록 수업혁신에 관한 논의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교육은 기다림이다.’

학교장의 자리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교육은 무르익어야 성장하고, 자발성에 기반하지 않은 일들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학교장의 역할

은 구성원의 자발성과 열정이 수밀도처럼 무르익도록 기다리면서 한결같이 지원하는 자리일 뿐. 나비효과의 근원도 기다림이 아니었던가.

2018년 2학기, 행복공감 소통 시간—

신학년도 사업을 협의하던 중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 교사에게 수업 관련 예산을 2만원씩 지원하고 전학공 운영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안내가 있었다. 이 때 어느 한 부장님의 “우리가 수업혁신에 대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가능한 정도까지만 해 봅시다.”라는 말에 우리학교도 드디어 전학공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 그 때 느꼈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 가져온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쉽게, 그리고 함께’
하는 세 가지 특색
나눔활동**

우리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특징은 ‘쉽게하기’와 ‘함께하기’이다. 쉬워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신학년도 계획 수립도 ‘쉽게, 그리고 함께가자’는 취지 아래 매월 2,4주 수요일을 전학공 시간으로 고정하여 편성하였다. 또 ‘수업’을 강조하는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교육청 사업명칭을 ‘독서나눔’, ‘수업나눔’, ‘문화예술나눔’ 영역으로 나누어, 수업혁신이 주는 부담감을 세 영역으로 분산하였다. 정책에 대한 왜곡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우리 구성원들은 ‘신월스타일’이라고 부른다.

2019학년도 3월 신학기, 첫 전학공 활동으로 맨발걷기 강○○ 강사를 초빙하여 건강힐링 특강을 들었다. 당시 맨발걷기가 선생님들 사이에 화제가 될 무렵이었다. 첫 시작을 힐링 프로그램으로 열자, 전학공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한결 편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4월로 접어들면서 허○○ 강사를 초빙하여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수업나눔 방안」이라는 연수를 실시하였다. 수업나눔의 첫걸음을 떼기 위한 배움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첫 수업나눔 연수는 강사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쉽게, 그리고 함께’하는 수업나눔을 위해 수업나눔 교사와 참관교사에 대한 역할합의가 필요했다. 수업동아리 구성원은 공동운명체이므로 나눔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 참관교사는 학생 모둠 속으로 들어가 진행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했다. 이러한 약속은 수업나눔의 독박(?)을 방지하여 수업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였다. 또 정기 수업나눔교사에 지정되지 않는 교사는 수업공개주간에 교과융합수업 나눔교사로 배정하여 전 교사가 수업공개를 함으로써 교사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 수업참관자는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학생의 활동과 변화 관찰’에 초점을 맞춘다는 규칙을 세웠는데 이는 배움중심수업의 철학을 익히고 공유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수업나눔협의회 때마다 교사동아리 이름이 적힌 명패(넘버원, 버금, 삼족오)로 협의 장소를 꾸미고, 협의 장

면을 일일이 촬영하는 등 담당부장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도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학공이 있는 2,4주 수요일은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을 단축하여 확보한 시간에 수업나눔 및 독서나눔, 문화예술나눔을 번갈아 실시하였다. 특히 수업나눔이 있는 날은 지정된 학급만 남겨서 수업을 하는데, 그 학급 학생들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남아서 수업을 하는 것을 더욱 반기는 모습을 보여 놀랐다. 수업공개 학급에 햄버거 등 푸짐한 간식이 제공되어서인지 “배운 것을 한 번 더 복습하니 좋아요.”라는 반응까지 보이는 학생들도 눈에 띈다. 이는 우리 신월 선생님들이 지닌 집단지성의 힘과 과감한 예산편성 덕분이 아닐까 한다.

6월에는 독서나눔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독서전문가 이○○ 강사를 초빙하여 「교사, 삶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으로 책나눔 연수가 있었다. 연수 이후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아 모듬별 11권의 도서를 정하여 독서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1학기에는 1권을 함께 읽고 나누는 활동을 하였고, 2학기에는 다양성을 존중하여 10권의 책으로 독서나눔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문화예술나눔’도 전학공 운영에 활력소로 작용했다. 전 교직원이 영화관에서 뮤지컬 영화 <알라딘>을 함께 관람하고 소감을 나누는 활동 및 수학나눔시간에 실시한 <나만의 컵만들기> 체험활동도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신월 빛소리 락밴드>, <난타(打樂)>, <바이올린>의 음악동아리와 <자연미인>, <맨발걷기를 사랑하는 모임>의 건강힐링 동아리 등 왕성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도 전학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쉽게 다가선
전학공- 더 나은
성과를 위하여**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학년도 말이어서인지 지금은 1학기보다 시들해진 면이 없지 않지만, 첫해에 이 정도 운영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학교장의 역량이라기보다 담당부장을 중심으로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의 넉넉한 마음과 열정 덕분이라 여긴다. 학교장의 역할은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의 자세를 잃지 않은 것과 ‘쉽게, 그리고 함께한다’는 마음가짐 정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사업정책 수립에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지 않는 사업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교훈을 얻었다. 굳이 운영성과를 말하라면, ‘친해야 다가서고, 쉬워야 실천한다.’는 말처럼 우선 다양한 나눔활동 과정에서 교직원 간 동료애(同僚愛)가 돈독해졌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수업혁신 전학공 사업이 특정한 수업 열성주의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나눔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을 긍정적 성과로 밝히며 글을 맺는다.

소통과 나눔 그리고 성장

대곡중학교 교장 황승재



대곡중학교.

행복학교 3년.

햇병아리 교장이 되고 보니, ‘학교 조직, 교육활동, 제도적 개선, 배움중심수업, 전 문적학습공동체.....’와 같은 말들이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역할’에 대한 고민을 안고 교문을 들어서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교장실에서 보이는 우리학교 교정은 지난 봄, 처음 왔을 때와는 빛깔이 많이 달 라졌습니다. 더 깊고 편안한 가을이 온 것입니다.

소통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1952년 개교한 우리학교는 2020년 3월 진주혁신도시로 대체 이전을 앞두고 있 습니다. 당연히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고 그로인한 부담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초보교장에게 2월에 있었던 3일간의 새학년맞이 교직원 워크숍은 많은 가 르침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뢰서클로 터놓고 소통하며 관계를 만들고, 생각 을 나누는 과정으로 교육비전을 정하며,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목 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던 것입 니다.

교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며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합의 하는 시간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3일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신뢰 써클, 학교 비전 만들기, 업무 분 장,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통해 학교의 중심에 모든 선생님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이었다”

새로 전입한 교사의 말은 워크숍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초보교장이 교사들과 함께 학교 경영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수평적 위치'와 '역할'을 고민하는 대곡중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나눔 매월 1, 3주 화요일 6, 7교시

매월 1, 3주 화요일 6, 7교시는 우리학교가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시간입니다. 정례화는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체제입니다. 수업계획안을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사전협의회, 배움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학생들의 말 한마





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수업참관 그리고 학생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수업협의회가 이루어지는 수업연구 시간인 것입니다. 종일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로 바쁜 교사들에게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 달 중 몇 시간의 수업연구는 꼭 배려해야 할 시간이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학교의 수업나눔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과 면 그리고 각을 활용하여 칸딘스키 미술 작품을 그리는 수학수업, 산 염기를 확인하는 지시약 색변화를 활용하여 미술작품을 만드는 과학수업, 적정기술 발명품 관련 읽기자료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영어수업. 교과융합을 통한 협업은 교사들이 스스로 변화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더불어 학생의 수업참여도 개선에도 효과가 컸습니다. 함께 만든 수업을 함께 나누는 과정은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소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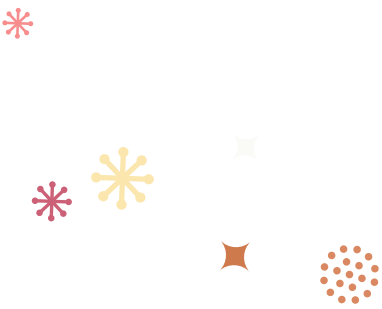
느림보의 시간

우리학교는 학교 안에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시간의 학교 내 직무연수를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매월 2, 4주 목요일 8교시는 교사 독서 동아리 ‘느림보의 시간’을 운영합니다. 참여한 교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고 수업, 학급운영, 생활교육 등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간입니다.

‘느림보의 시간’에는 수업관련 고민, 행복학교 철학, 아름다운 문학, 돌아보는 역사 등등에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수업이야기, 학생이야기, 학교 이야기..... 그 시간을 통해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마음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 갑니다.

성장 학교장, 학교 변화의 키!

우리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에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선, 학교가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려면, 학교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현장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라는 길에서 동참과 주도라는 적극적 실천 의지를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연수와 교육은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과 관련해서 그 효율성을 따지기가 힘듭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학교라는 공간은 일상적인 수업이 있는 곳입니다. 곧 수업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함께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공개 부담을 줄이고, 수업참관 속에서 학생의 배움을 관찰하며, 협의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과 성찰을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는 성장을 거듭합니다.

2019년 경남의 모든 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상황, 환경은 학교장과 업무담당자가 원칙을 지키되 창의적 방안 마련으로 운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례공유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창녕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관리자, 서포중학교 및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 일은 우리가 운영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배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벽을 허물고 공유하는 사례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공적인 일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장의 리더십, 교직원간의 소통과 신뢰, 혁신적 교육변화에 대한 개방성, 교육공동체의 파트너십 및 지식과 기술의 수반 등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과거에 비하여 교장의 결정권은 축소되었고 책임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교의 변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이 전학교로 확산된 현 시점에서 학교장은 수평적 리더십으로 교직원과 소통해야 합니다. 동료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 속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학생 배움중심수업 실천을 위해 교사 스스로 협력적 수업개선 의지를 가지고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한다면 학교현장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를 지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정적으로 지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은 집중하게 되고.



인연이 참 끈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25년 교사 생활 동안 그런 일은
아주 가끔 일어났을 뿐이죠.



이 웹툰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 및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위로가 쉬운 자기합리화였다. 결 매달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깊어라 갔죠.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됐지만...



그래서 찾게 된 것이 학교밖 전문직역사교육자였죠.



그리고 대단해 했습니다.



그게야 저는 혼자 있던 섬에서 나오게 된 거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교실을 만들어 온 것.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주와 친해진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때를 기다렸을 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이를 통해



삶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2019 수업혁신 전학공 컨설턴트들의 솔직 대담

쌀쌀한 날씨 속에 한 자리에 모인 여덟 분 선생님의 얼굴 위로 햇빛이 어른거립니다.
누구다, 누구다 인사를 하기도 전에 생겨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친밀감이 미소로 번집니다.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
‘갈등 속에서도 배우더라’
‘수업나눔 속에서 성장하더라’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며 눈이 맑아지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2019.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 컨설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이야기, 여기에 실었습니다.



진주제일중학교 **고선미** / 김해대청고등학교 **김경숙** / 밀양여자중학교 **김정미**
함양중학교 **손지미** / 김해경원고등학교 **오혜진** / 양덕중학교 **이정희**
명서중학교 **전지영** / 활천중학교 **정종희**



생생한 이야기 속에 고민이 있다

김경숙 컨설턴트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해 수업 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 중, 고 컨설팅을 다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은 있으셨나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별 담당자를 한 데 모시고 협의회 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대체로 전학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전학공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사실 전학공은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형화된 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실제 운영에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학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전지영 철학이 바탕이 된 전학공이 되면, 자발성은 저절로 생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하고,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하는지 등에 대한 가치가 공유되면 '이런 걸 또 왜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로 접근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정미 제가 방문했던 학교는 학부모 공개수업을 없애고 교사 수업나눔의 날에 학부모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전학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교사의 부담이 줄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정통신문을 그때마다 보내야 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이정희 우리학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간소화했습니다.

정종희 힘든 학교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학교는, 관리자의 무관심 속에 기간제 교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가니 업무담당부장은 인사를 한 후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나가기도 했습니다. 전학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학교라는 것이 바로 느껴졌고 당연히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컨설팅차 방문했던 많은 수의 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전학공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어느 학교는 문제풀이 등의 수업을 준비하려고 모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전학공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숙 여러 학교가 떠오르는데요, 특별히 운영담당자를 두지 않고 이전의 교과협의회 형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것을 ‘전학공 운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우선 생각납니다. 교사들 중 한 분이 '배움중심수업은 학생의 활동이 많아 질 높은 수업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교사의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오해가 크구나 싶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였는데 다양한 연수를 통해 배움중심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바꾸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다며 수업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교육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부모들은 학교만 바라보고 학생을 맡기고 있고 빨리 변화한 교육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다는 말씀이 절실하게 들렸습니다.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르고 수업설계를 하고 수업공개와 협의회를 하는 등 그 구체적인 내용관련 자료를 드리면서 전문가가 함께 하면 더 좋을 텐데 싶었고 수업컨설팅을 통한 수업연구 방안에 대한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오혜진 학교를 방문해보면 전학공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신규이거나 전입교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학공을 단순히 업무라고 생각하고 떠넘기는 식으로 담당자가 정해졌던 것이죠. 전학공 운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철학을 바탕으로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컨설팅을 다니면서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손지미 사실 시스템은 정착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일수록 더 잘 되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다들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시간 확보'의 문제였고, '철학의 부재'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연수를 할 때 특히 고민스러웠던 것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참여한 교사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대책도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대책도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 손지미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오혜진 교사 문화 속에서 자발성이 생겨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전학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김정미 우리 지역은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간혹 전학공 참여가 부족한 것이 시간 때문은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육아배려시간이나 출장으로 전학공 참여가 안 되는 경우 해당 교사들의 참여를 위해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간제교사 혹은 초임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변 교사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도 알고 싶더군요.

오혜진 업무가 되어 버린 전학공. 덜어내지 않고 뭔가 더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소통의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학공 속에서 학교 전체가 변화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그룹 간 의견 차이가 심한 학교가 있었는데 평상시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수업나눔에도 아예 참여하지 않는 그룹이 생기는 겁니다. 일이나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우도 없는데 왜 전학공은 함께 해야 하는지 묻는데 걱정스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김정미 교사들 중에는 아예 '못한다!'를 전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스로 전문가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 우려가 생깁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감으로 기존의 틀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도 역시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혜진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큰 것 같았습니다. 또, 몇몇 사립학교 중 동아리형 전학공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하고 싶은 교사만 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교사의 자발성이나 동아리형 전학공 운영에 대한 고민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손지미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학교에는 독서동아리가 있었는데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독서라는 공통관심사로 교사들이 모임을 하니 인간적 관계도 깊어지더군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한 전학공은 모든 교사가 참여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학년별 협의회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랐는데 사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평소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던 선생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학공이기 때문에 갈등은 안고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학공 운영 시간에는 서로 갈등을 드러내면서도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생각은 다르지만 시스템 속에서 수업 연구를 통해 같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힘들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다 하는데 나만 어떻게 빠지노!'라고 말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갈등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외면했던 것을 전학공 때문이라도 함께 모여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의 불편함과는 상관없이 솔직히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중희 관리자들도 갈등이 두려워서 전학공 운영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까 봐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온도 차는 있지만 우리가 수업에서는 협동적 배움을 추구하면서, 전학공 운영에서는 드러나는 갈등이 두려워 교사 간 협동적 배움을 익히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김경숙 '교장은 직책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말씀을 하신 교장선생님이 생각납니다. 독서와 악기연주,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교사 동아리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지도록 마음을 썼고 그렇게 했더니 담당자가 '우리도 수업나눔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다들 자연스럽게 전학공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수업공개와 협의회가 있으면 꼭 참여해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관리자가 시스템 속에서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선미 사실 우리는 학교 밖 전학공을 통해 성공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찌

면 우리의 자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연구회에서는 저녁 늦게 만나도 즐거웠습니다. 정례화한 전학공은 모두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작년 동아리형으로 운영할 때 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 함께'를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지영 '천천히, 다 함께'가 되려면, 선생님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식 연수에 의존하기 보다는 선생님들의 소통의 장이 연수가 되는 방식으로 조금씩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월 워크숍 때, 학교 구성원 모두가 비전을 공유하고, 학년교육과정과 교과교육과정재구성이 내실있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오혜진 동아리형 교사 수업연구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단위로 운영하되 전체 교사들이 같이 가야 한다는 방향성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큰 방향과 틀

은 하나의 교사공동체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지미 1, 2년차 선생님들의 에너지도 많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학공 시간에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감사해합니다. 사서선생님과 진로선생님, 상담선생님은 학교 안에서 소외감이 컸었는데 전학공을 운영하고 아이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선생님들의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오혜진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더 잘 배운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한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가 3개 정도로 늘다 보니 수업설계 등 연구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는 것은 바람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 한 과목은 손을 놓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소인수과목이 늘어나면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또 함께 수업을 고민하는 전학공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존중을 배운다

정종희 고등학교는 대입을 이유로 스스로 바꾸려는 고민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실현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을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했습니다.

오혜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전학공 시간은 정례화되었지만 업무가 많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지미 시스템도 정착이 되고 전학공 운영 속에 수업나눔도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학교별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스템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입니다. 때문에 일과시간 내 정례화는 제도적 보안을 통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동료 교사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수업설계 등 준비 과정을 통한 성장, 협의회의 피드백 과정을 통한 성장, 공개수업을 마친 후 자존감의 향상 등은 온전히 전학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교사로서도 역할이 있어서 좋고 전학공 속에서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는 교사들을 만나는 것도 뿌듯한 일입니다.

손지미 전학공을 통해 고경력 교사들의 노하우가 저경력 교사에게로 전달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경력과 상관없이 수업을 나누면서 학생의 관계를 관찰하며 협의회를 통해 동료가 되는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전학공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생각을 다지게 됩니다.

정종희 어떤 책에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문

화가 교사를 더 고립시키는 것은 아닐까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협의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전학공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나의 힘을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희 18~19시간의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담임 업무 등으로 학교는 항상 힘듭니다. 그 속에서 전학공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학공 속에서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혜진 수업을 보고 나서 협의회 시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 수업을 나눌 수 있는 전학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가 되고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사업 때문에 전학공 운영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2학기 시작 무렵 교육청 차원의 어떤 자극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나눔 속에서 성장한다

이정희 여하간 전학공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수업나눔입니다. 우리학교는 수요일마다 전학공을 운영하면서 수업나눔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서 그런지 교사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할 때마다 동료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루 정도라도 쉬게 해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협의회가 빨리 안 끝나나 선생님들의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김정미 그래서 학부모 공개수업과 동료장학을 합쳐서 수업나눔 1회로 전학공을 운영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지영 학부모공개수업과 수업나눔을 같이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참관자 중에 해당학교 선생님들은 몇 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다른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학부모 몇 분이었습니다. 수업나눔은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속에서 학생의 배움과 여러가지 실천적 배움을 내 옆 동료교사와 함께 나누는 것'이 방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공개수업으로의 대체는 국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손지미 전학공을 수업나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운영 내용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의 비전이나 민주적 학교 문화 등에 대한 것으로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숙 행복학교는 경남도내의 모든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학교가 말하는 전학공의 내용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전학공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리라 싶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전학공을 통해서 행복학교의 비전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종희 우리학교는 학년형 전학공을 운영하였는데 수업나눔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교사의 나눔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그 속에서 교사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활지도에 관한 이야기만 하던 것에서 배움중심수업 관련 내용으로 나눔 내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하구요.

"수업나눔을 하고 나면 모둠활동 관찰 후 그 모둠을 관찰한 교사들 간의 협의회에서 배움이 컸습니다. 역시 수업나눔 속에서 교사는 성장합니다" - 이정희





오혜진 행복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동료성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례를 나누는 연수보다 리더십 연수에 비중을 두어서 '학교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역할을 중심으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담당자를 위한 질 높은 연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지미 수업나눔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학년별로 하는 것이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년별로 전학공을 운영하려는 교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영 일반학교에서도 전학공의 씨앗이 되는 중심교사, 혹은 수석교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공의 컨설팅연수, 심화과정연수 등을 열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연수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수업나눔을 하는 교사를 정하는 데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초임이나 저경력 교사, 기간제 교사, 전임교사는 2학기 이후에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새학기맞이 워크숍에서 정해서 민주적 절차가 있는,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수업나눔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업나눔을 하고 나면 모둠활동 관찰 후 그 모둠을 관찰한 교사들 간의 협의회에서 배움이 컸습니다. 역시 수업나눔 속에서 교사는 성장합니다.

'천천히, 다 함께'를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고선미





교사, 연구자가 된다

김경숙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조건적인 자발성, 그냥 생겨나는 것 말고 학교, 정책이라는 체제 속에서 자발성을 촉발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커집니다. 덧붙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전학공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자 반감을 가진 교사들이 '우리는 못 한다', '난 이미 전문가다', '난 수업 잘 한다'라며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수업전문성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의미에서의 수업전문가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희 우리는 단돈 2만원으로 '연구하는 교사'의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방향은 우리 교육청이 잘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관련 업무 간소화 기조를 유지하고 연수와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학공에 불참하는 교사보다는 업무 담당자에게 힘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김정미 컨설턴트와 학교의 지속적인 연결 방안, 강

사 인력풀 안내, 행정업무 경감 대책 등도 다양한 경로로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고선미 2020년 전학공은 미리 일 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따라가면서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지미 담당자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전학공의 수업나눔은 '공적 자리'라는 것을 설득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평가혁신에 대한 고민도 큼니다.

이정희 네, 맞습니다. 실습 위주의 평가 관련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김정미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경숙 고교학점제 시행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수업 시수 감소를 위한 고민이 구체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하는 교사의 연구 시간 보장도 곧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대담을 마칠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연구와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내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며, 협의 과정을 통한 집단적 성장으로 학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올해부터 경남에서는 전 단위학교에서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교사 동아리와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상남도교육청의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일상의 수업연구 공유를 통한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 배움중심수업 실천의 내실화 및 확산을 위해 협력과 집단지성으로 수행되는 일과 내 정례화 된 공식 조직입니다.

취미, 친목을 주로 하는 동아리는 학교 구성원의 신뢰와 협력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업연구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정례적인 연구 활동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과별로 모여서 월1회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렵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교과별로 운영을 하는 경우, 교과 교육과정 문해력과 수업설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시간활용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 교사 중 수업을 공개하는 분이 있으면 수업준비를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공개의 부담을 나누는 것도 동료성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수업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때문에 모든 교사가 '수업 전 협의회-수업공개-수업 후 협의회'로 이루어진 연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업을 나누고 함께 성장함으로써 동료교사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저희 학교는 본래 학년부 모임이 잘 되고 있어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학년부 그대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학년형은 주로 대규모 학교에서 제안, 운영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형식입니다. 학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사(담임 + 비담임/교과담당교사)가 함께 하면서 '학년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수업연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간 융합수업, 주제 통합 수업을 함께 준비하고, 학생의 관계 만들기와 돌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담임교사 중심의 학년모임의 경우 대부분 학생 생활지도나 학급문제 공유, 진학지도나 업무협의회 등으로 그 의미가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의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협의회를 통해 수업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교실 수업에서 실천적인 지식을 배우는 수업 연구를 주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연구는 수업 나눔(수업 전 협의회 - 수업공개, 수업 후 협의회)과 수업성찰 이외에 교육과정 읽기(문해력 기르기)와 재구성, 수업과 평가를 주제로 한 독서토론,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 수업연구에 필요한 연구 등을 내용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정례화를 위한 시간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육과정 운영방식에도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시간확보에 관한 관련 부서간 협의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시간을 확보한 학교들은 연간 136시간 이상의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 운영 방식을 수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째, 범교과 주제교육은 최대한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운영, 창체에 배정된 시수를 전학공 운영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년별 특색 활동(학년 교육과정)도 교육과정 안에 포함을 시킨다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시간이 적어도 격주 1회(6~7교시, 2시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운영은 교육과정과 수업을 중심에 둔 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정례화 시간 확보에 대한 전체 교사 협의가 있으면 좋습니다. 더불어 교내 행사 축소, 결재라인 간소화 등 교사의 업무 경감을 논의하시는 것도 정례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를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 나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될까요?

2019.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나눔은 학부모 공개수업과 별도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업나눔은 수업 후 협의의 과정에서 수업을 공개한 교사와 참관한

동료교사가 더 많이 배웁니다. 따라서 수업공개와 수업협의회를 묶음으로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업 동영상 찍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시간에 수업협의회를 하면 어떨까요?

수업영상을 통해 교실수업을 보는 것은 수업사례연구의 좋은 방법입니다. 수업영상은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서로 어떻게 배우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협력적으로 배우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촬영하고, 수업영상을 볼 때에는 수업자와 함께 하면서 수업의도를 듣고 성취기준을 살펴며 수업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이 많고, 수업을 연속성 있게 보아야 어떤 부분에서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적 수업참관이 가장 좋은 수업사례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수업 나눔은 일상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래도 수업공개인데 배움중심수업이나 특별한 수업기술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의 수업이란 '평소의 교실 수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수업 공개란 평상시의 일상적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수업 공개라도 공개수업인지라 수업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수업 공개를 통해 참관교사들은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살펴 협의회에서 나누고, 수업자는 성찰을 통해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



다 보면 수업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학교 안에서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공개 수업에서 무엇을 보고, 협의회 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관찰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려워하는지, 협동적으로 배우는지, 배움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및 태도, 수업 설계 등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을 할 때는, 교실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옮겨가면서 보는 것 보다, 교사별로 모둠을 정해서 관찰하는 것이 한 시간 동안 학생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업 후 협의회에서는 수업자의 수업 의도, 관찰 모둠별 협의, 전체 공유를 통하여 수업에서 관찰한 부분과 수업에 대한 성찰 등 수업을 통해 자신이 배운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위한 수업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 공개자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수업 나눔의 수업자 선정은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교사의 소통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업 나눔의 의미를 충분히 나누고, 전교사가 일상의 수업공개를 어떻게 할지, 수업연구를 위한 대표 수업이 필요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업자 선정에는 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정례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연구의 의미가 크므로 수업 나눔은 실천해야 하지만 강제적인 수업 공개는 학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 간의 동료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면 좋을까요?

교사 1인당 2만원의 예산 교부는 '전체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이라는 취지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개인에게 각각 2만원씩 지급하라는 뜻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실제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업협의회 운영비(교사 간식, 수업 공개 반 학생 간식 등), 연수 강사비(수업 컨설팅비), 도서 구입비, 자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019.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한눈에 보기

중등학교 급별 운영방식 비교

(대상학교 : 중학교 238교, 고등학교 168교)

학교 형

연간수업나눔횟수		운영 방식		연간 운영 시간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① 없음	17(8)	① 매주	10(5)	① 5시간 이하	28(13)
② 1-2회	67(32)	② 격주	53(25)	② 6-10시간	42(20)
③ 3-4회	29(14)	③ 월1회	101(48)	③ 11-15시간	45(22)
④ 5회 이상	96(46)	④ 기타	45(22)	④ 16-20시간	37(18)
				⑤ 21시간 이상	57(27)

학년 형

연간수업나눔횟수		운영 방식		연간 운영 시간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① 없음	14(14)	① 매주	8(8)	① 5시간 이하	13(13)
② 1-2회	26(25)	② 격주	22(21)	② 6-10시간	26(25)
③ 3-4회	15(14)	③ 월1회	46(44)	③ 11-15시간	20(19)
④ 5회 이상	49(47)	④ 기타	28(27)	④ 16-20시간	22(21)
				⑤ 21시간 이상	23(22)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연구와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 참고 : 운영형태(2개 이상의 혼합운영교 다수 포함)

학교형 > 209	학년형 > 104	교과형 > 142	동아리형 > 79
-----------	-----------	-----------	-----------

교과형

연간수업나눔횟수		운영 방식		연간 운영 시간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① 없음	17(12)	① 매주	13(9)	① 5시간 이하	23(16)
② 1-2회	57(40)	② 격주	20(14)	② 6-10시간	45(32)
③ 3-4회	19(13)	③ 월1회	76(54)	③ 11-15시간	39(28)
④ 5회 이상	49(35)	④ 기타	33(23)	④ 16-20시간	16(11)
				⑤ 21시간 이상	19(13)

동아리형

연간수업 나눔횟수		운영 방식		연간 운영 시간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설문내용	응답학교수(%)
① 없음	14(18)	① 매주	4(5)	① 5시간 이하	12(15)
② 1-2회	26(33)	② 격주	20(25)	② 6-10시간	15(19)
③ 3-4회	13(16)	③ 월1회	36(46)	③ 11-15시간	23(29)
④ 5회 이상	26(33)	④ 기타	19(24)	④ 16-20시간	17(22)
				⑤ 21시간 이상	12(15)



운영 시 어려운 점과 필요한 것

(설문조사 중 서술형 답변 내용 정리)

1) 중학교

핵심내용	세부내용
가장 어려운 점은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자발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들의 인식전환 2.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교사 및 관리자 인식 개선 3. 교사의 자발성 4.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5. 수업이 공문처리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 6.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필요성 등에 관한 많은 홍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시간 확보, 일과 내의 정례화가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간의 확보 2. 일과 중 운영 3. 정해진 일과에 틈이 없어서 수업과 협의회 일정(시간) 만들기가 어려움 4. 일과 중 운영으로 참관 교사의 시간표 교체의 어려움 및 충분한 협의 시간 부족 5. 담임교사라 일과 후 학생지도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간에 참여하기 어려움
업무 경감이 반드시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마다 교무 행정원 추가 배치 2. 업무 과중, 업무의 간소화로 모임이 부담이 없어야 함 3.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추가된 데 대한 업무 경감 필요 4. 학생 사안 및 상담 등의 문제 발생으로 다함께 하는 참여하는 협의회 시간을 갖기가 어려움
수업공개 및 배움 중심 수업의 어려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공개에 대한 두려움 2. 자진해서 수업 나눔 공개수업을 할 교사 확보 문제 3. 수업 나눔의 의무화 정책 이후 교사 부담 증가 및 수업 나눔의 효과에 대한 이견. 4.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이해와 인식 변화, 교사 성장을 위한 연수, 예산 확충이 가장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에서 교과 관련 배움 중심 수업 실제와 관련한 연수 필요 2. 일상 수업의 공개일지라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교육 철학적인 면의 공유를 위한 연수 등이 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해야 함 3. 수업 혁신을 위한 많은 의무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변화를 유도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함 5. 수업 컨설팅 강사 섭외, 컨설팅 강사비 재원 마련 등
소통이 있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2. 수업혁신에 대한 저마다의 방법이나 의견이 다양하고, 꼭 수업 나눔이나 협의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어려움. 3.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

2) 고등학교

핵심내용	세부내용
정례화, 시간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안내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간확보의 어려움 2. 일과시간 내 운영 방안 모색 3. 시간확보를 위한 업무 간소화 필요 4. 학사일정으로 인한 시간확보의 어려움 5. 정례화 방법에 대한 예시와 안내 필요 6. 특성화 고교의 맞춤형 수업으로 인한 시간확보의 어려움
운영 방식과 내용에 자율성 부여가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별 자율적 운영 존중 필요 2. 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운영의 자율권 확대 3. 수업나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공유 4. 운영내용(수업공개와 협의회)에 대한 안내 강화 필요
예산 운용은 증액과 자율권 보장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년 초 예산교부 2. 운영관련 예산 증액 필요 3. 교재비, 연수비 지원 필요 4. 연구실 등 물리적 연구환경 예산 지원 필요 5. 학교별 상황에 따른 예산지출 자율권 보장 필요 6.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전학공 운영관련 사례 공유와 연수 및 컨설팅 확대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별, 교과별 우수운영사례 공유 필요 2. 업무담당 교사 연수기회 및 컨설팅 확대 필요 3. 교육청/연수원 단위의 수업혁신 관련 연수 개설 확대로 전학공별 공동참여와 공동 연구 분위기 유도 필요 4. 다양한 형태의 전학공 운영관련 자료집 필요 (실질적 기안양식, 활동지 등) 5. 특성화고에 맞는 우수사례 공유 지원 필요
수업나눔 중심의 전학공 운영으로 수업전문성 향상 고민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공개 횟수가 아닌 수업나눔 중심의 운영 고민 필요 2. 수업공개와 협의회 관련 교사의 인식 변화를 위한 지원 필요 3. 단위학교별 3회 정도의 수업나눔 컨설팅 지원 필요 4. 강사 및 컨설턴트 인력풀 구성 학교별 안내 필요



나도 한마디

(현장 컨설팅 인터뷰 중)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마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차차 평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리라고 본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또 하나의 업무로 생각하여 모임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선생님들도 꽤 많다. 교사의 업무경감도 체계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수업을 바꾸기 위한 교사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 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전학공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교사다모임이 활성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고민도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축적된 역량을 학교 안에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학생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수준 높은 수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구가 개인노력이 아닌 교사들의 소통하는 문화 속에서, 집단지성으로 해결점을 찾는 부분이 매력적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 성장하고 있음이 확실히 느껴진다.

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가 교육목표 아래 연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과 공동체, 학년공동체, 교과와 학년 융합공동체 속에서 교육과정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보며,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실천적 지식들을 배웠다. 그리고 나의 수업을 성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외로운 여러 개의 섬 같았던 교무실 문화가 차차 공동체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사서교사, 상담교사까지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함께 의논하는 자리여서 좋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19.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배경

- ▶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수업 혁신의 확산이 어렵다.
- ▶ 교사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 능동적으로 수업과 평가혁신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교사들도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란?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해 2명 이상의 교원이 함께 배우며성장하는 학습공동체

학년별 또는 교과별 연간 운영 계획 협의
 교육과정 읽기,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과 평가 혁신 독서토론, 수업 고민 나누기
 수업 방법 및 평가내용 협의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 및 공유
 수업나눔 및 수업 성찰

교과별, 학년별, 전교사1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 2018 + 전 초중고등학교 학교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 안내자료 "함께" 및 매뉴얼 보급
- 2019 + 단위학교 일과시간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정례화
예산 지원 및 컨설팅 실시
- 2020 + 단위학교 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
다양한 연수 및 지원으로 현장 안착 지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교사들의 자발성제고’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육과정과의 연계’
‘학습하는 조직으로의 전환’
‘민주적인학교문화조성’

올해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기초를 다진 해였습니다. 2020년에는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세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배움이 즐거운 수업나눔축제 돌아보며



함께

를 만든 사람들

| 집필 및 검토 |

교장 김덕현(신월중) / 교장 황승재(대곡중)

교감 이근우(총무고) / 교감 홍정희(호암중)

수석교사 정진숙(합천고) / 수석교사 황영미(물금중)

교사 강동선(김해분성고) / 교사 김경숙(김해대청고) / 교사 김민주(양산중앙중) /

교사 오남영(합천중) / 교사 오혜진(김해경원고) / 교사 전지영(명서중) /

교사 전현주(신어중) / 교사 정종희(활천중)

| 총괄 및 기획 |

김현희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과장

공효순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상래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